

# 1960년대 이후 군산, 사진에 담아

군산대 박물관 기획전 '흑백으로 꺼낸 기억, 군산' 개관... 12월 31일까지 전시·다양한 연계행사도 마련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지역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한 신철균 사진전 '흑백으로 꺼낸 기억, 군산'이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이 특별전은 군산대학교가 작년 11월 사진 작가 신철균 선생으로부터 기증받은 사진과 필름 1만5000여 컷 중에서 작품성과 역사성이 뛰어난 50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하는 것이다.

신철균 작가는 1960년대 이후 군산의 풍경과 사람, 생활상 등을 따뜻한 시각으로 사진에 담아내어, 그의 작품 대다수는 역사적 자료로도 손색이 없고, 예술성 역시 뛰어나다.

개관식은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 및 주요 보좌자, 전국 박물관 운영위원,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개관식 후에는 연계행사로 토크 콘서트가 마련되어 의미가 깊었다.

신철균 작가는 90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여 전시 사진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와 흑백의 기억들을 펼쳐 놓았다. 전시회는 12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고, 연계행사인 '주제가 있는 갤러리 토크'가 준비되어 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신철균 사진전 '흑백으로 꺼낸 기억, 군산'이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10월 23일에는 '금강, 그 물결 따라 100년', 11월 13일에는 '군산 해어화 100년', 11월 27일 '군산 야구 100년'을 테마로 '주제가 있는 갤러리 토크'가 열릴 계획이다.

광병선 총장은 이번 특별전과 관련하여 "일제 강점기부터의 군산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신철균 선생님의 사진은 군산의 시간을 복원

하는 데 매우 큰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라면서 "선생님의 기증 덕분에 군산의 지난 시간들을 중심으로 정감 있고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 마련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박물관 전시 관람 및 행사 참여 문의는 군산대학교 박물관(469-4191~2)으로 가능하다. /군산=김정훈 기자

## 세계적인 뮤지션 이루마와 함께하는 '피아노 세레나데'

부안예술회관에서 내달 4일 무료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10월 4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에서 '피아노 세레나데 with 이루마'를 무료 공연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는 뉴욕 카네기홀 대극장 전석 매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3년 연속 전석 매진 등 월드투어를 통해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루마는 5세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11세에 영국 유학길에 올라 유럽음악 영재의 산실인 파셀스쿨에서 작곡 및 피아노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런던대학교 킹스컬리지에 입학해 현대

음악의 거장 헤리슨 버트위슬에게 사사했다.

또 국내 연주음악가 중에서 독보적으로 일본, 독일, 호주 등지에서도 라이선스 앨범을 발매하고 꾸준한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매한 앨범은 플래티넘까지 달성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뮤지션임을 입증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깊어가는 가을밤 이루마 특유의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을 통해 따뜻한 감성으로 힐링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문화원, '문화원의 날' 성료... 흥겹고 다채로운 공연 선보여

예향고창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고 있는 '고창문화원'이 25일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제4회 문화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문화원의 날'은 지역문화의 진흥과 노교가 많은 문화인들의 사상과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김영호 고창군의회 부의장, 이경신 고창군의회 운영위원

장, 조민규 군의원, 김미란 군의원 등을 비롯해 3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평소 지역문화발전에 공로가 큰 문화가족들을 위한 시상과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산문화원과 도농교류 차원에서 남도민요, 아코디언연주, 부채춤, 경기민요 메들리 등 흥겹고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향토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수채화, 서예, 한지공예품 등을 27일까지 전시한다.

고창문화원 송영래 원장은 "행사를 통해 군민 모두가 문화감성을 가슴에 안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활동에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군민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네 남자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

내달 10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연극 '망원동 브라더스' 공연

오는 10월 10일 오후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연극 '망원동 브라더스'가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기획공연으로 준비됐다.

'망원동 브라더스'는 제9회 세계문화상 우수상을 받은 소설가 김호연의 소설을 원작으로, 대학로에서 꾸준히 공연되는 인기 연극이다.

불확실한 미래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호평을 자아낸 작품이다.

연극은 우연히 망원동 8평 옥탑방에 모인 20대 만년 공시생과 30대 백수, 40대 기러기 아빠, 50대 황혼 이혼남까지 네 남자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현실감 있게 그려낸다.

진솔한 삶의 모습을 유쾌하게 보여주면서 세대별 고민을 관객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희망과 감동을 전한다.

이번 공연은 12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 좌석 1만 5천원이다.

정읍시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예약할 수 있고, 자세한 공연 정보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편 정읍시는 수도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기작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우수작품을 엄선하여 준비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전 세대가 공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과 아동극 '뚝딱하니 어룡'을 공연할 예정이다.

## 내일 고창 고인돌유적 보존·활용 학술발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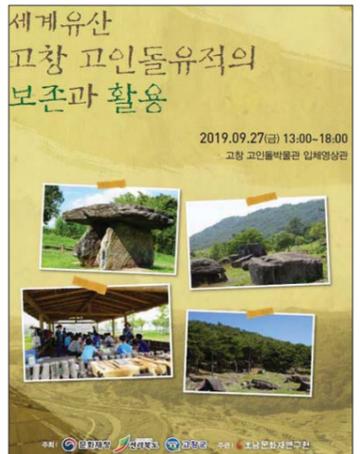
고창 고인돌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20주년을 앞두고 보존과 활용에 관한 학술발표회가 오는 27일 오후 고창고인돌박물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발표 주제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보존과 활용'으로 진행된다. 먼저, 임경희(국립고창박물관) 학예연구관의 기조발제로 '연속유산으로서의 세계유산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보존의 현황과 제언'이 발표된다.

이어 윤호필 상주박물관장의 '고창 고인돌유적의 구조와 특징', 김재홍(한국문화유산연구원 센터) 대표의 '고창 고인돌유적의 활용방안 모색·문화유산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등 국내 거석 유적의 보존에 관한 의미 있는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2000년 11월 29일 화순·강화 고인돌유적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유적은 그동안 고인돌박물관 건립, 국립선사마을 운영 등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고창 고인돌유적의 현안 및 국내외 활용사례의 비교검토를 통해 고창 고인돌유적의 지속적인 연구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 20주년을 맞아 고창의 자랑인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생명문화실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 석정온천

# 가

많은 즐거움

# 온천대축제

2019년 10월 2일(수) ~ 10월 6일(일)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석정온천관광지 일원

주최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주관 고창군 한국온천협회